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
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
보 도 자 료

2015년 6월 25일(목) 10:00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과장 이상준(044-203-4320), 최수연 사무관(044-203-4326)

“산업통상자원부-방위사업청, 소형헬기 개발사업 착수”
- 민수와 군수헬기의 연계개발로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군 전투력 강화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와 방위사업청(청장 장명진)은 6월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(주)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까지 소형민수헬기(이하 LCH)를, 2022년까지 소형무장헬기(이하 LAH)를 개발하기로 했다.

* LCH : Light Civil Helicopter, LAH : Light Armed Helicopter

□ 헬기 개발사업은 산업부에서 민군 겸용 구성품과 민수헬기를 개발하고, 이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이 군용에 적합하도록 개조·활용해 소형무장헬기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양 부처가 협력을 하기로 했다.

○ 소형민수헬기(LCH)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(주), 에어버스헬리콥터스가 국제공동으로 9,500억 원*을 투자해, 민수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** 10,000lbs(4.5톤)급 헬기와 헬기 핵심기술을 확보해 항공 민수시장 진출과 독자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.

* 정부 3,500억 원, 업체 2,000억 원, 국외업체 4,000억 원

** 10,000lbs(4.5톤)급 소형민수헬기의 세계시장은 2021~2030년 동안(10년간) 약 2천여 대로 전망(Forcast International, Information Handling Service)

○ 또한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소형무장헬기(LAH)사업은 6,500억원(정부투자)을 투입하여 LCH 기반으로 개발된 민군 겸용 구성품을 활용하고(공용률 58%) 무장·사격통제체계를 탑재함으로써, 군 운용요구에 부합한 무장헬기를 2022년까지 개발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.

□ 이 사업을 통해 민·군수 헬기를 국내에서 개발·생산함으로써 핵심 기술 확보와 함께 부품과 완제기의 수출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, 노후한 군용헬기를 최신 임무장비와 무장을 탑재한 신형 헬기로 교체해 군 전력증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○ 또한 헬기 핵심기술인 메인 로터 블레이드, 자동비행조종 소프트웨어(SW), 능동진동제어시스템 등을 개발해 독자 헬기개발능력을 보유하고, 앞으로 응급의료, 경찰감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헬기를 수출할 계획이다.

○ 이번 개발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관으로 국내 항공부품업체, 대학,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산·학·연의 역량 결집으로 경제적,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.

○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개발 이후 국내외에서 LAH와 LCH를 총 1,000여대 판매하는 것을 목표이며, 경제적 파급효과 23조 원, 연인원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(문승욱 시스템산업정책관)와 방위사업청(준장 이상명) 관계자는 "본 사업은 민과 군의 수요를 충족하는 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, 민·군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

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최수연 사무관(☎044-203-43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